

## 안중근 의병의 전략전술적 성격

白 奇 寅\*

1. 머 리 말
2. 한말 의병의 전략전술
3. 안중근 의병의 전략전술
4. 안중근 의병의 군사사적 의미
5. 맺 음 말

### 1. 머 리 말

안중근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에 그의 자서전이 간행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 다각적인 연구가 제기되었다. 그 후 다시 안중근에 대한 박은식의 전기를 비롯하여 천주교의 관련문건, 그리고 중국 및 러시아 측 연구자료의 발굴이 추진되면서 안중근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사 정리가 이루어졌다.<sup>1)</sup>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1) 조광, 『안중근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2집(2000년 봄호), 180-204쪽.

그러한 성과가 안중근의 행동과 사상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이해를 가능하게 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와서 학계와 교회 및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가 중심이 되어 안중근 관련연구를 활발히 전개했는데, 전기류에 관한 검토를 비롯하여 연해주지역에서의 의병운동,<sup>2)</sup> 당시 언론자료를 통한 사건과 안중근의 대외인식이나 주변국의 하얼빈사건에 대한 인식,<sup>3)</sup> 공판투쟁에 대한 분석,<sup>4)</sup> 나아가 그의 주변 가계의 독립운동 및 신앙과 동양평화사상에 관한 진전된 연구<sup>5)</sup>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 같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의병부대와 항일투쟁에 대한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이해는 제한되어 있다. 이는 비단 안중근 의병<sup>6)</sup>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의병전쟁과 항일투쟁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도 하다. 의병투쟁이 '전쟁'이라면 마땅히 거기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전략전술과 같은 군사적인 실제의 양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겠다.

- 2) 윤병석 편, 『安重根傳記全集』, 國家報勳處, 1999; 同氏, 「안중근의 연해주 의병운동과 同義斷指會」,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4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0, 111-126쪽; 박환, 「러시아 연해주에서의 안중근」, 『안중근과 한인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2.
- 3) 한시준, 「중국인이 본 안중근」, 『충북사학』 11, 2000; 장석홍, 「안중근의 대일본 인식과 하얼빈 의거」, 『교회사연구』 16, 한국교회사연구소, 2001; 이상일, 「안중근의거에 대한 각국의 동향과 신문논조」, 『안중근과 한인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2; 유병호, 「중국인들이 바라본 안중근의 형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5; 안중근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준비 제1회 국제학술회의에서 다루어진 5편의 논문(「안중근 의거에 대한 인식」,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2005. 3. 25) 등.
- 4) 한상권, 「안중근의 하얼빈거사와 공판투쟁(1)」, 『역사와 현실』 54, 한국역사연구회, 2004; 同氏, 「안중근의 하얼빈거사와 공판투쟁(2)」, 『덕성여대논문집』 33, 2004.
- 5) 한시준, 「안중근의 생애와 독립운동」, 『교회사연구』 15,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이현희,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사상」, 『문명연지』 2-1, 한국문명학회, 2001; 유미애, 「안중근 평화사상의 현대적 의미」, 『한국북방사학회』 9, 2002; 오영섭, 「안중근 가문의 독립운동」, 『안중근과 한인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2; 기타 『교회사연구』 16(2001)에 실린 차기진, 전달수, 정인상, 변기찬, 김승배 등의 연구.
- 6) 여기서 안중근 의병이란 크게는 안중근이 소속한 연해주 의병부대를 가리키지만, 직접적으로는 그것이 분할되어 작전활동을 전개한 소부대화된 안중근 의병부대를 말한다.

단적으로 말하면, 의병운동은 비록 대한제국이나 정부가 전쟁의사를 결정할 처지도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의병투쟁이 민족의지와 양심을 대변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전쟁이었다.<sup>7)</sup> 특히, 초기 해외의병의 대표격인 안중근 의병은 국내 의병의 한계를 넘어서 해외의병 투쟁으로 전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이념적 지향이나 투쟁방략, 나아가 군사적 능력이나 수단을 가늠해볼 수 있는 의병전쟁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여겨진다.<sup>8)</sup>

본고에서는 의병전쟁의 전개과정에 내재한 군사적 의미를 토대로 안중근 의병의 전략전술에 대해 군사사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한말 의병은 '그 성과보다 죽음을 무릅쓴 저항정신'에 비중을 둔 투쟁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sup>9)</sup> 그 무기와 전략전술이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실제적인 양상을 이해하는 일을 도외시킬 수는 없다. 의병의 전략전술은 단지 의병전쟁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전통적인 전법체계가 근대 이행기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적응해갔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단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2. 한말 의병의 전략전술

### (1) 의병의 투쟁전략

1907년 7월 24일 일제에 의해 이른바 '정미7조약'이 체결되자 의병전쟁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조선이 일제에 의해 식민지로 전략해가는 목전에

7) 조동걸, 「의병전쟁의 특징과 의의」, 『한국사』 43, 국사편찬위원회, 1999, 514쪽.  
8) 백기인, 「안중근의 국권수호운동과 사상」, 『청계사학』 13, 1997, 441-480쪽.  
9) 朴殷植, 『日人弑我國母儒林學義 (『韓國獨立運動之血史』 상편 4장).

서 국권수호를 위한 무력투쟁이 보다 현실적인 투쟁방법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다. 그해 8월 1일 해산된 대한제국군의 군인들은 근대식 무기를 가지고 지방에 내려가 의병에 가담했고, 그들은 점차 규모·조직·무장을 강화한 투쟁력으로 전면적인 항일전을 전개할 태세였다. 무력투쟁에 의한 의병전쟁이 국권수호운동의 주류가 된 것이다. 의병전쟁노선도 점차 해외에서의 근거지운동으로 전환했는데, 예컨대 신민회의 독립군기지 건설과 같은 활동이 그 대표적인 예다.

항일무력투쟁의 성격을 띠게 된 의병전쟁은 1908년 초에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하는 13도 창의군이 조직적으로 '서울탈환작전'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sup>10)</sup> 당시 의병부대는 각국 영사관에 교전단체로 통고하면서 그 투쟁력을 강화해갔으며, 그러한 의병부대의 항일투쟁은 점차 전면적인 투쟁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의병전쟁은 의병-독립군-광복군으로 이어지는 무장항쟁의 적극적인 투쟁노선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군사력과 전략전술은 상당기간 담보상태에 있었다. 의병은 애시당초 정신적인 저항에 우선하여 기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한된 무기체계와 전투력으로써 성패와 무관하게 투쟁한 측면이 있었음은 사실이다.<sup>1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병전쟁 자체가 무력투쟁이었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인 힘이나 운용력이 어떠했는지는 의병전쟁의 군사적 실효성이란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대체로 당시 의병이 주로 사용한 기본 화기는 화승총이었다.<sup>12)</sup> 양총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고는 하나 드문 경우였고 심지어 활·창·칼 등 재래적인 무기가 우위를 차지했다. 예컨대, 전남지역의 의병이 6%가 양총을 사

10) 이인영에 대한 최근 연구로는 오영섭, 「한말 13도 창의대장 이인영의 의병활동」, 『고종 황제와 한말의병』, 선인, 2007, 297-327쪽 참조.  
11) 박은식은 의병전쟁의 본래 목적이 '討賊復讐(義)에 있기 때문에 그 성패만을 알기위부하는 것이 '천박한 이해'라고 지적한 시각의 대표적인 인물이다(『韓國獨立運動之血史』 참조).  
12) 김창순·박성수 편, 『韓國獨立運動史』, 삼광출판사, 1989, 34쪽.

용한 반면에 94%는 화승총을 사용하고 있었고, 강원도 의병은 27%가 양총을 사용했고 73%가 화승총을 사용했다고 한다. 함남지역 의병의 경우, 양총이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듯 각 지역 의병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로 국내 의병의 기본화기는 화승총이 주종이었다. 그들이 사용한 화승총의 사정거리는 10보 안팎이었다. 게다가 산탄이었기 때문에 치명상을 입힐 수 없었고 그것은 중대한 결함이었다.<sup>13)</sup> 화약이나 철환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일본군의 29식 장총과 맞서 싸우는 데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화승총은 쓸 수 없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러나 의병진에서도 부분적이었을지라도 화승총의 성능을 보다 높여보고자 했는데, 의병부대에서는 1908년 2월 이후 화승총을 개조하여 4월 초순부터 뇌관식 화승총을 사용하게 되었다. 뇌관식 화승총은, 전장식(前裝式) 화승총을 개조하여 단발총으로 사용함으로써 탄약의 장전이 손쉬운 천보총(千步銃)이라 불린 뇌관식 소총인데 의병의 주무기가 된 것이다. 그런데 황해도 의병과 같은 일부 의병진에서는 군대해산 때 은닉한 신식무기인 모제르 소총이나 무라다 소총도 사용했다. 그밖에 일본의 38식 소총에 대응하기 위한 신식무기의 밀거래는 물론 화약과 탄약을 자체에서 제조하여 무기체계나 화력을 강화하고자 한 경우도 나타났다.<sup>14)</sup>

이러한 화력 보강과 더불어 한말 의병은 점차 그 조직, 지휘체계, 나아가 전략전술적인 운용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종래의 산발적인 투쟁보다 다층적이고 집중적이며 보다 기민한 투쟁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1907

13) 10보는 1보를 1.2m로 본다면 불과 12m밖에 안되는 거리다. 이는 얼마되지 않은 거리지만 화승총은 그 거리에서도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그마저도 산탄이었으니 그 명중률이 저조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에 반해 일본군은 서양식 38식 소총으로 유효사거리 400야드에 매분 8~10발을 사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05년 이후에는 수류탄과 기관총까지 동원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었다.

14) 최기영, 『한국무기발달사』, 국방군사연구소, 1994, 591-594쪽;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資料』 14, 119, 626쪽.

년 8월부터 1911년 6월 사이에 약 14만여 명의 의병이 일본 군경과 3,000회에 가까운 전투를 벌였던 점도 의병의 투쟁이 점차 일정한 전술적 운용력을 담보로 했음을 반증해준다.<sup>15)</sup> 특히, 연해주를 비롯한 해외에서의 의병활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대간 합동작전을 전개했는가 하면, 근거지 중심의 장기적인 투쟁전략에다 병력소산에 의한 전술적 운용을 배합하면서 투쟁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 (2) 의병조직과 전술

의병부대는 민군이고 본질상 자연발생적인 의용군이었으므로 상부구조와 하부구조가 정규군과 같지 않았다는 점은 잘 알려진 바다.<sup>16)</sup> 의병은 상부구조가 집단적이었고 하부구조는 10명 미만의 인원이 초십(哨十)을 만들고 주거별로 편성됐다. 예컨대, 경기도 양구읍(楊口邑)의 김봉명 부대를 보면 대장 김봉명, 총독 조운보였고, 함남 포수군 임창근 부대의 경우에는 임창근이 정독이었고, 부독으로 차도선과 홍범도가 있었다. 또한, 전해산 부대는 간부·도포·도십장·십장 등을 선발하는 데 있어 양반이나 상민을 구별하지 않고 그 재주를 시험하여 능력에 따라 임명했다. 심지어 그의 부대에서는 의병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여 민폐를 방지하기도 하였다. 요컨대, 의병은 일종의 향군이었고 향군조직을 갖춘 부대였던 것이다.<sup>17)</sup>

향군조직은 전통적으로 향약, 향규, 동계 또는 촌계로 결속된 공동체조직으로서 독자적인 자치단체로 존속하여 왔는데, 민군은 이러한 촌락공동체를 바탕으로 조직되었다. 다시 말하면, 한말의 향촌은 단순한 민간자치단체를

15) 柳在城, 『義兵抗爭史』,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337쪽.

16) 김창순·박성수 편, 『한국독립운동사』, 35쪽.

17) 박성수, 『義兵과 獨立軍-조직, 편성의 연속성』(제6회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489-501쪽; 박성수, 『한국독립운동사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242-25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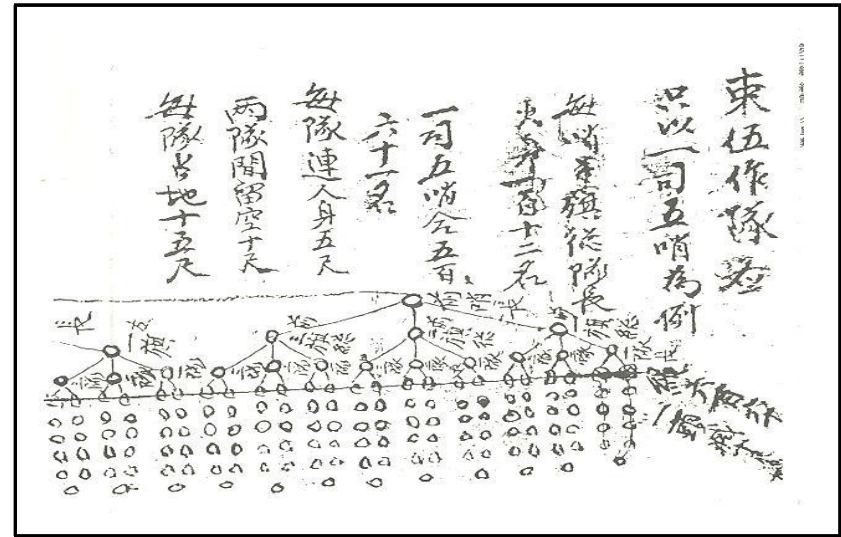
넘어서 전시의 비상국방체제의 기초가 되는 향군조직이었으니 국가주도의 관병체계와는 별도로 민간 주도의 민병이 그 뿌리였다.<sup>18)</sup>

주지하는 바와 같이, 향촌행정의 최소단위는 오가작통(五家作統)의 원칙에 따라 조직되었고, 그 군사행정은 십호일병(十戶一兵)의 원칙에 따라 선발되는 것이 상례였다. 십호일병의 원칙에 따라 소집된 민병들은 다시 십병일초(十兵一哨)의 원칙에 따라 편성되었고, 그 장을 초십장이라고 했던 것이다. 경기도 양구 김봉명 부대가 초십조의 편성이었고, 또한 함남의 홍범도와 차도선 부대는 10명 단위가 기본 편성이었다.<sup>19)</sup>

이러한 10명을 기준으로 하는 의병부대의 기본 편성은 우리의 전통적인 것이었고, 조선후기에 지방군제에서 강조된 속오군제의 기본 편제를 변형시킨 편성이었다. 속오군의 편성을 참고한 이른바 ‘속오작대법(東伍作隊法)’은 이강년 의병부대가 거의 완벽한 기본 편제를 보여준다.<sup>20)</sup>

현재 남아 있는 「속오작대도(東伍作隊圖)」에는 의병부대의 조직, 편제, 대오, 행진법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병사 10명이 좌우 이열중대로 서고 선두에 대장 1명, 후미에 화병 1명이 서는 것이 의병군의 최하위 기본 대형이었다.<sup>21)</sup> 이것이 대의 편성법이였다. 각 대는 각각 셋으로 묶어 3개대 36명을 1기로 하여 기총 1명이 이를 통솔한다. 그리고 이 36명 단위의 기는 다시 셋씩 묶어서 3기가 1초로 편성되며 초장 1명이 이를 통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1초는 모두 108명이 되며 기총 3명과 초장 1명을 포함하여 112명이 1총의 총원이다.

[그림 1] 속오작대도의 일부



이와 같은 의병부대의 최하위 부대편제가 3·3의 원칙으로 편성된다면, 그 위의 상부단위는 5·5의 원칙에 의해 조직된다. 그것은 5초 5명의 원칙에 따른 것인데, 초는 중초와 좌·우·전·후초의 5초이고, 이들 5초를 1명으로 묶어 영사(營司) 1명이 이를 지도하며, 영 역시 중영과 좌·우·전·후영의 다섯으로 나누어 5명이 된다.<sup>22)</sup> 따라서 5초는 560명이며 이들이 1명이 되고, 다시 이들이 5명을 구성하니 총병력이 2,500명이 되었다.

또한 속오작대도(東伍作隊圖)에서는 각 대간의 대오 11명을 편성함에 있어서 맨 앞에 대장이 서고 그 뒤에 좌우로 5명씩 늘어선다, 대원 간의 거리는 5척이고 각 대 간의 거리는 10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진법에 있어서 행진할 때에 먼저 북을 울리되, 한번 치면 1보씩 가고 소리에

18) 조선후기의 향촌조직과 방위체제에 관해서는 정경현, 「19세기의 새로운 國土防衛論—다산의 『民堡議』를 중심으로, 『한국사론』 4, 서울대, 1978을 참조.

19) 박성수, 「義兵과 獨立軍—조직, 편성의 연속성」, 490-491쪽.

20) 이하 박성수, 「義兵과 獨立軍—조직, 편성의 연속성」, 493, 502-503쪽.

21) 10명 단위의 편성은 『기효신서』의 鴛鴦陣에 기초한 기본전술편제와 유사하다. 다만, 속오작대법에 의한 대의 편성이 후미 1명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 다르고, 이것이 의병부대의 기본편제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백기인, 『朝鮮後期 國防論研究』, 도서출판 혜안, 2004, 196쪽; 백기인, 『중국군사사상사』, 국방군사연구소, 1996, 192쪽 참조.

22) 박성수 교수는 우리 고사에서 '삼삼오오'란 말이 서로 흩어져 무질서한 군중이라는 뜻을 나타내지만 그 실체는 이 같이 무질서한 군중을 3대, 3기, 5초, 5명으로 묶어 조직화한다는 군대편성의 원리에서 나온 말이라고 본다.

맞춰야 하며, 조금씩 빨리 쳐서 속도를 내며, 대열의 행진순서를 전영(前營), 전사(前司), 전초(前哨), 일기(一旗)가 제일 앞서고, 제1대, 제2대, 제3대의 순서로 간다. 1기의 뒤로는 2기, 3기의 순서로 정하고, 기통은 제3대의 뒤에 서며 초장은 좌 1초의 가운데, 대장은 중영에 따라간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sup>23)</sup>

그리고 금고령에서는 북을 한 번 치면 일어나고 두 번 치면 나아가며, 징을 한 번 치면 멈추고 두 번 치면 물러서며, 북과 징을 같이 치면 퇴병한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끝으로 대오의 편성 및 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련을 거듭할 것과 실제 전투에 임할 때 차질이 없도록 경계하고 있다.<sup>24)</sup>

이러한 이강년 의병부대의 기본 편제를 보여주는 속오작대법은 향촌의 민보체제를 계승한 것이다. 그것은 조선후기에 지방군제인 속오군제가 19세기에 유명무실해지자 민보체제가 강조되던 상황에서 향촌의 조직과 민병조직이 맞물려진 전통적인 유제였음을 잘 보여준다.<sup>25)</sup>

민병조직인 의병은 결국 전법적으로 유격전술에 의존했고, 그것이 화력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의병의 유격전술은 탁월한 수준으로 일본경찰도 인정하는 바였는데, 그것은 한국농민의 건각과 체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그들이 지닌 불굴의 저항정신도 지칠 줄 모르는 체력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sup>26)</sup>

그러나 모든 의병이 잘 훈련된 병사였거나 모든 의병장의 전술적 능력이 능숙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1907년 의병부대에는 경험 없는 지휘관에 평소에 훈련 없는 농민이 운집한 의병부대가 적지 않았다. 게다가 지방주의가 의병의 조직원리로 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단위의 의병대가 연

23) 『東伍作隊圖(朴成壽·孫承喆 編,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義兵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3), 476-484쪽.

24) 『東伍作隊圖』,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義兵篇』, 485-486쪽.

25) 백기인, 『동아3국 근대전법형성의 군사사상적 배경』, 『군사』 제48호, 2003를 참조.

26) 朴成壽, 『獨立運動史 研究』, 창작과 비평사, 1980, 250쪽.

합하여 대부대로 합진했을 때 그 지휘명령권이 서기 어려웠다. 1907년 11월 경기도 양주에 집결한 13도 창의군 약 1만 명이 서울공격에 실패한 이유도 그러한 점과 무관하지 않았다.<sup>27)</sup>

또한, 의병은 민군이었기 때문에 국고의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이 원칙이었고, 민이 스스로 자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부담원칙이 각 호의 재력에 따라 배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자연 부민이 군자금을, 빈민이 병력대원으로 나아가는 결과가 되었다. 그들은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군가를 지어 사기를 올렸는가 하면, 전장에서는 북을 치거나 호라를 불어 진격신호로 삼았다. 또한 백색 의복이 전투에 불리함을 알고 청색으로 물을 들여 군복으로 삼았으며, 적군에 심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한편 위장술을 쓰기도 했던 것이다.<sup>28)</sup>

### 3. 안중근 의병의 전략전술

#### (1) 안중근 의병의 국내진입작전

안중근이 항일투쟁 방법을 국내의 문화운동에서 해외의 무력투쟁으로 전환하여 무력단체 조직에 나선 것은 1908년 초의 일이었다. 당시 국내에서 국권수호운동의 한계를 절감한 그는, 연해주지역으로 이주하여 한인촌에서 독립기지 건설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고자 했다.

그러한 판단에 따라 안중근이 선택한 해외투쟁은 결국 근거지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우선적인 무력투쟁'이었다.<sup>29)</sup> 다시 말하면, 무력에 의한 국

27)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 上, 17쪽.

28) 김창순·박성수 편, 『한국독립운동사』, 35쪽.

29) 흔히 근거지전략이란 게릴라부대의 전략적 기지를 마련하여 전쟁을 장기화하여 적절한

권회복운동을 우선적 방략으로 삼아 국제적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근거지를 중심으로 한 무력투쟁은 이미 1896년경 유인석이 구상한 이른바 '복진지계(復振之計)' 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는데,<sup>30)</sup> 지리적으로나 무장투쟁의 국제적·사회적 조건으로 볼 때 백두산은 간도와 청·러시아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근거지가 되었다. 안중근 역시 해외 한인사회를 근거지로 한 무력투쟁의 기반을 이용하여 장기적인 항일투쟁을 전개하고자 했던 것이다.

연해주에서는 안중근의 제창으로 신속하게 의병부대를 조직화했는데, 이 범윤 주도의 동의회와 창의회가 연합하여 의병부대 조직에 필요한 자금과 병력을 확보했다. 당시 병력규모는 2~300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편성은 총독 이범윤, 총대장 김두성, 그리고 대장 전제덕, 김영선 등이었고, 안중근은 참모총장에 피선되었다.<sup>31)</sup> 이 부대가 바로 연해주 의병부대인데, 실제 작전에서는 이를 소부대로 분할하여 운영했다. 그들은 일종의 근거지전략을 취하되 전술적으로는 게릴라전에 의한 소부대 단위의 작전을 전개한 것이다.

당시 연해주지역의 의병진은 전문 35개조에 달하는 '의병규칙'에서 드러나듯이 근거지엄정과 대일투쟁의 목적성을 분명하게 하고, 러시아식 5연발 소총과 1인당 100~500발의 탄환을 휴대함으로써 일정한 전투력을 운영했

시기에 전략적 반격을 가한다는 일종의 지구전 전략이다. 군사사적으로 보면 게릴라전에 있어서 근거지 전략의 개념은 1930년대 후반 마오쩌둥에 의해 '항일유격전쟁의 전략문제'라는 논문을 통해 제시된 '6대 전략적 강령'으로 체계화되었다. 마오는 힘의 열세라는 현실적 조건하에서 '근거지 건설'은 무장부대를 조직할 무장역량의 동원과 게릴라부대의 조직, 나아가 민중과의 배합에 의한 항일무장투쟁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했다(백기인, 「마오쩌둥의 유격전 이론 형성과 전개」, 『전사』 제6호, 2004, 61-63쪽).

30) 姜在彦, 「朝鮮獨立運動의 根據地問題」, 『朝鮮民族運動史』 No.1, 1984, 22-27쪽.

31) 안중근의사승모회, 『안중근의사자서전』, 1986(4版), 130쪽. 그러나 당시 일본 경찰은 이범윤이 지원하는 의병부대의 규모를 700~약 1,000명으로 파악하고 있었다(『韓暴特通第六號』, 明治41年 7月 19日), 『暴徒에 관한 編冊』(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19 의병편 XIII, 1970, 85쪽 所收).

다. 안중근 의병부대 역시 기본적으로 연해주 의병의 운용방식에 따라 무력투쟁을 전개했다. 그들은 두 차례에 걸친 국내진입작전을 전개했는데, 그 과정은 연해주 의병의 전술적 단면을 잘 보여준다.

먼저, 제1차 국내진입작전에서 그들은 두만강 연안 국경선 부근의 일본군 수비상황을 탐지한 후, 국내의병과 연락을 취하여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찰부대를 투입했다.<sup>32)</sup> 1908년 6월 초 안중근은 좌군영장 엄인섭과 함께 우군영장으로서 각각 100명의 병력<sup>33)</sup>을 거느리고 두만강 하류 일대를 정찰한 상황에서 두만강 지류인 서두수 상류지역에서 활동하던 홍범도 부대와 연락을 취하며 국내에서의 거점 확보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들의 기본 편성은 여타의 의병진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홍범도 부대와 공동으로 일종의 합동작전을 전개하려 했음이 주목된다.<sup>34)</sup>

안중근 부대는 노브키예프스크에서 엄인섭 부대와 함께 출발하여 서두수의 상류지역으로 진출하여 홍범도 부대와 연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 홍범도는 차도선이 일본군에 귀순한 뒤로 약화된 부대를 이끌고, 갑산·삼수지역에서 근거지를 옮겨 다니고 있었으므로 안중근 부대는 홍범도와 조우하지 못했다. 결국 안중근 부대는 두만강 연안의 농사동에 도착했는데, 이때 20여 일간에 걸친 행군에 의한 피로로 일본군의 돌연 기습을 받아 타격을 입고 백두산지역으로 후퇴했다가 연해주로 귀환했다.<sup>35)</sup>

두 번째는 제2차 국내진입작전인데, 이 작전은 국내의병의 협조 없이 독

32) 柳在城, 『義兵抗爭史』,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4, 310쪽.

33) 안중근 부대를 비롯한 연해주 의병에 대한 병력규모에 대해 우덕순은 그의 회고록에서 안의 부대를 4소대, 자신의 부대를 12소대였다고 하면서 각각 50명씩 편성하여 작전을 실행했다고 회고했다(『禹德淳先生의 回顧錄』, 尹炳奭 編譯, 『安重根傳記全集』, 國家報勳處, 1999, 169쪽). 그러나 12소대라는 말은 부대가 소부대로 분산 운영했음을 말해주는 단서겠지만, 당시의 부대편제상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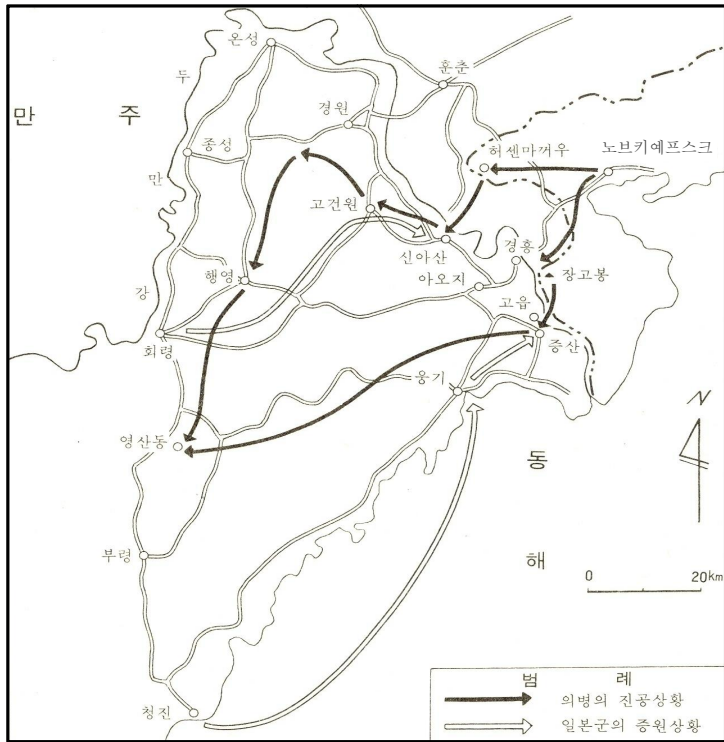
34) 군사적으로 일종의 '합동작전'을 전개하고자 한 셈인데, 합동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휘·통신의 일치에 기초한 합동성(jointness)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중근 의병부대와 홍범도 부대는 이 점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35) 柳在城, 『義兵抗爭史』, 311쪽.

자적으로 국내에 진입하여 무산과 갑산·혜산진 지역에 독자적인 활동거점을 확보한 다음 현지에서 국내 의병과 합류함으로써 군세를 확장시켜 장기항전을 수행하기로 하고 실행한 국내진입작전이었다.<sup>36)</sup>

노브키예프스크에 후방 기지를 둔 연해주 의병부대는 작전기지를 두만강과 가까운 러·청 국경지대의 허센마꺼우로 추진한 다음, 국내진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했다. 1908년 7월 5일, 이른바 연해주 의병인 전제덕 부대는

[그림 2] 연해주 의병부대의 국내진입작전



자료 : 유재성, 『의병항쟁사』, 310쪽.

36) 이하 柳在城, 『義兵抗爭史』, 312-315쪽을 참조.

예하에 우군 영장인 안중근 부대의 병력 100명과 좌군 영장인 엄인섭 부대의 병력 100명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두만강을 건너 6일 경흥 남쪽의 고읍에서 다시 동남쪽에 위치한 증산으로 진출했다. 일본군 경흥수비대에서는 뒤늦게 척후병 4명을 보내 동태 파악에 나섰으나 의병진에서는 그들을 모두 사살했다.<sup>37)</sup>

의병부대는 낮에는 은신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야간행군으로 갑산으로 나아갔다. 도중에 일본군과 산발적인 접전은 있었으나 가능한 한 일본군과의 충돌은 피했다. 그러던 중 안중근 부대가 일본군 포로 수명을 사로잡았는데, 그는 포로들에게 일본의 불법성을 꾸짖고 '만국공법'에 따라 그들을 모두 석방해주었다. 그러나 석방한 포로들로 인해서 안의 부대는 위치가 노출되어 적의 기습을 받고 분산되고 말았다. 결국, 안중근 부대의 손실로 전제덕 부대는 갑산지역으로의 진출을 포기하고 무산에서 전열을 정비하기로 하고 행군방향을 전환해야 했다.

한편, 안중근 부대를 포함한 전제덕 부대 외에 또 한 부대가 허센마꺼우를 출발하여 7월 10일에 두만강을 건너 신아산으로 진출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200여 명의 병력으로 일본군의 경흥 수비대의 신아산 분견대를 급습했다.<sup>38)</sup> 2시간에 걸친 접전으로 의병부대는 신아산에서 분견대 진지를 점령하고 파괴했다. 일본군은 청진 수비대에서 70명을 차출하여 증산지역을 수색하는 한편, 회령의 제49연대 제9중대를 신아산으로 급파하여 수색작전을 전개했다. 일본군은 의병부대를 찾지 못한 채 두만강 경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작전을 종료했다.

전제덕 부대와 신아산의 의병부대는 부대의 단일화를 위해 회령에서 전열을 재편해야 했는데, 부대통합과정 중 지휘체계가 명확하지 못한 상태에

37) 『特報(7월 11일)』(號外: 警秘收第6684號, 明治41年 7月 24日), 『暴徒에 관한 編冊』, 91-92쪽.

38) 『特報(7월 11일)』(號外: 警秘收第6684號, 明治41年 7月 24日), 『暴徒에 관한 編冊』, 92쪽; 『韓暴特通第十三號』(明治41年 7月 31日), 『暴徒에 관한 編冊』, 104쪽.

서 일본군의 결정적인 타격을 받고 각개 분산되어 노브키에프스크로 복귀했다. 이렇게 하여 안중근 부대는 물론 전제덕, 엄인섭 부대로 구성된 연해주 의병의 국내진입작전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이후 산발적인 유격활동에 머물렀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안중근 부대를 비롯한 연해주 의병부대의 전반적인 작전실태는 전투력으로나 전략전술상으로 단독작전이나 합동작전 등 그 어느 것이든 성공적이지 못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일본 정규군에게 일정한 정도의 위협과 피해를 주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작전적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특히, 부대와 부대 간의 연락, 공동의 합동작전을 위한 합동성, 나아가 화력의 효과적인 집중 등 전술적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발휘하지 못한 채 군사적으로 둔화되고 말았다.

## (2) 안중근 의병의 전략전술

안중근 부대는 물론이고 연해주 의병은 객관적인 전투력에 한계가 있었다. 그들은 일본군의 보고에 의하면,<sup>39)</sup> 일부 신무기인 러시아식 5연발의 소총을 휴대하고, 전술적 행동을 하며 나아가 공동으로 합동작전을 시도하여 종래의 의병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 그들은 행동이 민첩했을 뿐만 아니라 니콜리스크에서 구입한 신식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래의 전장식 화승총을 개조하여 사용하거나 혹은 일본군으로부터 은닉한 소총을 사용하던 국내 의병 단계에서의 화기보다는 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장받았다.

그리고 전술적인 운용에서는 비록 게릴라식 소부대의 작전활동으로 종래와 유사했지만 합동작전을 시도하거나 일정한 병력수를 담보함으로써 다양한 전술적 변형에 의한 일정한 전술 발전을 이룩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친 국내진입작전은 방어적인 군사활동에서 공세적인 군사작전을 중심으로

39) 『韓暴特通第十三號(明治41年 7月 31日)』, 『暴徒에 관한 編冊』, 104쪽: 柳在城, 『義兵抗爭史』, 315쪽.

한 의병전쟁의 수행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연해주 의병부대는 그 편제 자체를 완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기본 편제가 전통적인 의병의 전형인 '속오작대'에서 보는 '3·3·5·5제'를 그대로 적용한 것은 아니었고, 국내진입작전에서 보듯이 기본적인 지휘체계에 영장을 중심으로 간편 운영한 변형된 편제였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간편 운영은 정규전이나 전면전은 수행하기 곤란한 그야말로 소부대 분할에 의한 유격전밖에 할 수 없는 전투력에 제약을 받는 편제였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 같은 연해주 의병으로서 안중근 부대는 포획한 포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중근이 개인적인 신앙이나 신념에 기초하여 포로처리에 있어 만국공법에 의한 인도주의를 고집하여 석방함으로써 적으로부터 역습을 당하는 결정적인 전술적 실책을 범하고 말았다. 이러한 안중근의 행동은 군사행동에서 전투원칙과 신앙윤리 간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심리적 단층을 잘 드러낸다.

군사지휘철학이란 측면에서 볼 때, 안중근의 행동은 실제적인 전투원을 이끄는 무장된 군사집단의 지휘자라기보다 도덕과 신앙윤리에 충실한 정신적 지도자에 가까웠다. 그는 의병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이 말한 대로 일종의 선전(善戰), 즉 정당방위에 입각한 정의의 전쟁을 치른다는 명분에 경도된 채 실제적인 전장관리나 전투수행에서 착오를 범했다고 할 것이다.

안중근 의병은 의병전쟁에 대한 참여 형태로 보면 '승패에 상관없이 싸우는' 종래의 의병정신과 여전히 큰 변함이 없었고, 객관적인 전투력의 형성 및 그 운영이라는 군사적 안목은 제한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그가 이른바 문화운동에서 무력투쟁으로 항일투쟁의 방향을 바꾼 것이 그만큼 시기적인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지 결코 의병전쟁 자체가 완전한 독립을 가능케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그것은 '국민된 자의 의무'로서 의병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일<sup>40)</sup>이라는 명분적 선택의

40) 『韓國獨立運動史資料』(이하 『資料』로 약함) 6, 國史編纂委員會, 1977, 394쪽.



결과였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실제로 안중근은 당시의 국제정치적 상황을 보고 열강들의 충돌을 예상하면서<sup>41)</sup> 대일 강경책이 더 효과적인 투쟁이라고 생각했고, 그에 따라 그가 선택한 해외에서의 투쟁 방법은 궁극적으로 무력투쟁과 외교를 연결하는 방식이었다. 무력에 의한 국권회복의 운동을 우선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여 국제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sup>42)</sup>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지만, 현실적으로 안중근의 의병부대가 근거지 중심의 군사전략적 환경에서 취한 군사행동의 전술적 형태는 게릴라전 유형의 소부대작전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안중근의 의병투쟁은 그의 신앙과 결부되어 비록 의거일지라도 무력은 본질적으로 '폭행'이라는 부정적 가치의 표상으로 간주했다. 그는 의병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적들이 것처럼 폭행하는 바는 하느님과 사람이 다 노여워하는 바다. 이제 우리마저 야만의 행동을 하고자 하는가?"라고<sup>43)</sup> 자신의 행동에, 군사적 차원에서보다 윤리적 차원의 잣대를 잴 때였다. 그는 의병전쟁 중에 자신의 행동을 군사적인 전투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기보다 한 개인으로서 인간윤리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비군사적 태도를 취하곤 했다.

결국 그것은 안중근의 개인적인 심리동인에 의한 것이었지만 안중근 의병의 딜레마가 되고 말았다. 작전 중에 획득한 포로를 선의의 입장에서 풀어준 안중근 부대는 실제로 일본군의 기습을 받고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다. 그 결과, 부대는 해체되어 노브키예프스크로 원복하면서 집단적인 무력투쟁에 대한 커다란 좌절감마저 느끼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후 안중근은 하바로프스크지역에서 의병재기를 도모했지만 사실상 의병의 재구성은 불가

41) 「被告人第六回訊問調書」,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6, 국사편찬위원회, 1968, 175-176쪽.

42) 안중근의 해외의병활동은 국권수호운동이란 차원에서 볼 때 우선적 무력투쟁과 외교를 연결하는 전략적 접근이었다. 즉, 건전한 독립을 위한 적극적인 무력투쟁을 하되, 이를 외교적 성과와도 연결시켜 동시효과를 달성해야 한다는 투쟁전략이었다(백기인, 「안중근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95, 33쪽).

43) 안중근의사승모회, 『안중근의사자서전』, 1986, 139쪽.

능했고, 이른바 '독립특과대'와 같은 별도의 개별조직으로 분화된 활동으로 다시 투쟁방법을 새롭게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sup>44)</sup>

이러한 상황에서 안중근 의병의 투쟁방법은 곧바로 단지동맹(斷指同盟)과 같은 비밀결사의 활동으로 나아갔고, 또한 이또오히로부미의 포살이라는 비밀결사적인 형태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의병의 재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직 동원이나 인적·물적인 기반이 취약한 그가 취할 수 있는 대안적 선택이었다.<sup>45)</sup> 다시 말하면, 조직적인 의병전쟁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동시에 집단행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제 안의 투쟁은 개별투쟁인 의열투쟁 형태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 4. 안중근 의병의 군사사적 의미

안중근 의병은 연해주 의병부대에 힘입어 항일투쟁의 방법적인 전환과정에서 나타난 과도적인 성격을 띤 무력투쟁이었다. 그러기에 안중근의 개인적인 가치와 윤리의식은 전투에서의 전술목표와 전략적 접근에 괴리를 야기하면서 전장관리측면에서 실수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안중근은 전투를 현실적인 눈이 아닌 신앙과 종교적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가 의병활동 중 전투를 치르면서도 매일 하느님께 대한 예배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점은 독실한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sup>46)</sup> 그로 인해 전투에서 군인으로서의 전장정보판단과 행동결정에 혼란을 겪었다. 결국, 그의 신앙적인 심성과 태도가 당시 해외 의병이 갖고 있던 조직적 투쟁력의 한계나 물적인 기반의 취약이라는 요소와 맞물리면서

44) 「公判始末書第三回」, 『資料』 6, 333쪽; 『滿洲日日新聞—公判速記録』, 第一日(記録).

45) 尹慶老, 「安重根思想研究」, 『民族文化』 3, 1985, 85쪽.

46) 『資料』 6, 327쪽; 『資料』 7, 516쪽; 「Wilhelm 서한(1919. 8. 27, MEP 고문서고 No. H-51).

의병부대의 활동방향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린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사실 일반적으로 의병이 일본군과 전투를 하면서 입은 피해는 심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군사적으로 전투력상의 열세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규군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심했다. 더군다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들이 투쟁의 의미를 승패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안중근 의병부대 역시 결코 이러한 의병투쟁사의 일반적 성격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조선폭도토벌지(朝鮮暴徒討伐誌)를 통해서 보면, 1907년 8월부터 1911년 6월 사이에만도 약 14만여 명의 의병은 일본 군경과 3,000회에 걸친 전투에서 전사자 17,727명, 부상자 3,706명의 손실을 입었다.<sup>47)</sup> 이에 반해 일본군은 전사 133명, 부상 275명에 불과했다. 일본 측의 기록이 반드시 정확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일본군에 비해 의병 진영의 전투손실이 월등히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의병 진영의 장비와 보급 체계, 그리고 전투기술이 절대적으로 열세했고 게다가 결사항쟁을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sup>48)</sup> 그것이 의병부대가 처한 현실이었다.

안중근의 의병투쟁 역시 이러한 국내 의병이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비록 주변 의병부대와 합동작전을 전개하고 나름대로 소규모 부대에 의한 게릴라전을 통하여 일정한 성과도 거두었지만 그 한계는 명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중근 의병의 투쟁활동은 결국 의열투쟁으로 귀결되었고, 그 같은 과정은 의병투쟁사 차원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군사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첫째, 안중근은 나름대로 군사적 지식을 겸비한 당대의 신지식인이었고, 타 의병부대와의 합동작전을 전개하는 등 제한적이거나 군사적인 통합력과

47) 『朝鮮暴徒討伐誌(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 I(義兵運動)』, 東京, 原書房, 1967, 239-247쪽, 附1).

48) 당시 의병부대가 상대로 한 일본군은 기본 화력은 물론 이미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을 통해서 전술적으로 완성된 현대전적 전투력을 구사하는 정규군이었던. 이에 대해서는 백기인, 『동아3국 근대 전법형성의 군사사상적 배경』, 『군사』 제48호, 2003, 200-201쪽 참조.

체계적인 작전능력을 운용하는 전술적 구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의병부대 내의 지휘계통상으로 협조가 원활하지 못했고 군사적 식견의 차이 등으로 인해 그 성과는 미미한 것이었다.

당시 근대적인 지식을 수용한 일부 신지식인들이 일본군과의 정면 대결을 무모한 것으로 보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의병항쟁보다 먼저 국력을 기르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던 상황에서, 안중근은 무력투쟁을 항일투쟁의 가장 우선적인 방법으로 선택했다. 그러나 그의 투쟁은 의병이 본래부터 견지하고 있던 승부를 초월한 투쟁에 충실한 나머지 다만 사람으로서 할 바를 다하고자 할 따름이라는 명분적 투쟁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현실적인 군사적 전략전술을 토대로 한 투쟁성은 여전히 미진했다. 그의 의병투쟁은 비록 해외의병의 선구적인 투쟁이었다고 하겠지만 아직은 해외에서 의병활동이 조직적인 무력이나 전략적인 의병전쟁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둘째, 안중근의 의병투쟁은 결국 투쟁력의 군사적 한계와 그 기반의 취약으로 인하여 개별적인 비밀결사에 의한 투쟁방식을 전환하는 전술적 변환에 직면해야 했다. 그러한 점에서 그의 투쟁은 투쟁의 적극성은 평가할 지라도, 신채호의 지적대로 “안중근·이재명 등 열사의 폭력적 행동이 열렬하였지만 그 배후에 민중적 역량의 기초가 없었다”는 점에서 무력투쟁의 ‘폭력적 중심’을 위한 보다 집단적인 조직화가 요구되었다.<sup>49)</sup>

그러한 의미에서 안중근 의병을 비롯한 연해주 의병은 191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의병전쟁이 독립전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었다. 결과적으로 안중근 의병은 개인적인 의열투쟁으로의 방법적 전환을 통해 소규모 정예에 의한 비밀결사적인 투쟁형태로 나아가면서 1920년대 항일 의열투쟁의 대명사인 의열단(義烈團)의 투쟁과 같은 비밀결사투쟁의 단초를 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한일애국단 소속으로 일황에게 투탄

49) 丹齋 申采浩先生紀念事業會, 『利害』, 『丹齋 申采浩全集』 下, 1947, 149쪽; 『新教育과 愛國』, 『丹齋 申采浩全集』 下, 131쪽.

한 이봉창과 홍커우공원에서 의거를 일으킨 윤봉길과 같은 의열투쟁의 전범이 되었다.<sup>50)</sup>

셋째, 안중근 의병활동은 비록 군사적인 의미에서는 실패했지만 투쟁방식의 전환을 통해 의열투쟁의 길을 열면서 한국 민족운동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민족운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sup>51)</sup> 특히, 그가 이또오의 포살을 의병전쟁의 일환이라고 강조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투쟁, 민족운동, 그리고 세계평화라는 인식의 확대를 통한 보다 보편적인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피압박민족의 해방논리에 중대한 정신적 영향을 끼쳤다. 안중근은 의병투쟁을 통해서 문명의 왜곡된 가치, 즉 경쟁적인 기계와 살육·전쟁의 양상으로 치닫는 '근대문명'의 문제점을 직시했고, 자칫 기계와 문명이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예리하게 지적했던 것이다.<sup>52)</sup>

이상에서 안중근 의병의 군사사적인 의미와 성격을 논해보았는데, 그의 행동과 사상은 결국 불의에 저항하여 전쟁도 불사한다는 정신에 기반을 둔 '정의의 전쟁'과 같은 것이었고, 궁극적으로 '동양평화론'으로 불리우는 이상적인 평화사상을 정립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그것은 현실적인 투쟁조건의 한계가 여전히 의병전쟁 수행에 중요한 관건이었고, 그로 인해 결국 군사적인 조직역량의 제한이 또 다른 비밀결사적인 투쟁의 형태로 투쟁노선을 선택하도록 강요한 것이었다. 요컨대, 안중근 의병의 사상이나 투쟁 양상은 그의 정신적인 세계 속에 지배하고 있던 평화정신의 현실적 투사의 결과였다.<sup>53)</sup> 이러한 의미에서 안중근의 항일투쟁은 군사적인 '실질적인 힘(real

50) 일찍이 박은식은 안중근의 의병투쟁을 높이 평가했으며, 신채호 역시 그의 투쟁을 '義烈鬪爭의 典範'으로 주목했다. 그러나 모두 안의 무력투쟁적 성격 자체를 강조한 것이었지 군사적 가치나 의미를 지적한 것은 아니다.

51) 『天津大公報(宣統二年一月十日)』, 『海外的 韓國獨立運動史 資料VI』, 국가보훈처, 1990, 245-246쪽.

52) 『東洋平和論』, 〈序文〉.

53) 안중근의 유일한 직계 손자인 안희호는 안중근의 이상주의적인 정신세계에 주목하면서 '균형의 의미를 가르쳐준 낭만주의의 화신'이라고 평한 바 있다(『世界日報』, 1993년 2월 3日).

power)'에 의한 본격적인 무력투쟁이었다기보다 그의 이상주의적 평화관이 의병전쟁이란 형태로 표출된 과도적인 투쟁방식이었다고 하겠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안중근 의병의 전략전술과 그 운영 양상을 군사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안중근 의병부대 역시 당시 의병부대가 처한 투쟁여건이나 능력상으로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병의 기본 화기가 대체로 화승총이었고, 재래식 무기인 활·창·칼 등에도 부분적으로 양총을 사용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안중근 의병을 포함한 연해주 의병의 무기는 신식 소총이 중심을 이루었고, 안중근이 이또오를 포살할 당시에는 벨기에제 브라우닝식 권총을 사용한 데서 볼 수 있듯이 무기체계나 그 성능면에서는 종전보다 우수한 상태에 있었다.

지휘체계나 조직상으로 보면, 종래 의병이 본질적으로 민병에 토대를 두고 상부와 하부가 상이한 구조를 이루고 향촌조직을 중심으로 한 주거별 편성에 따른 반면, 안중근 의병을 포함한 연해주 의병은 간편 편제로 변용되었고 지휘체계상으로 상부와 하부구조에 큰 구분이 없었다. 그리고 전투 편성에서는 이강년 부대의 '속오작대법'에서와 같은 의병부대의 정규적인 기본편제인 '3·3·5·5제'를 취하지 않고, 이를 변용하여 게릴라전 수행을 위한 소부대화한 분산대형을 취했다.

이러한 안중근 의병은 종래 의병의 편제를 따른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독립군과 같은 부대편제를 이룬 것도 아니었다. 안중근 부대를 포함한 연해주 의병은 후기의병이 의병전쟁에서 독립전쟁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보여준 편제와 전술형태를 취한 것이었다. 그의 부대는 100명 단위로 독립

작전을 전개했으며, 필요시 두 차례의 국내진입작전에서와 같은 합동작전을 구사했다. 합동작전은 실패했지만 전술적 발전임에 틀림없었으며, 그들이 추진하고자 한 합동작전은 지휘체계의 일원화와 통신수단의 문제 등 새로운 전술에 적용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과 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

일반적으로 한말의 의병부대가 물적인 토대의 취약으로 승패보다 저항 자체에 의미를 둔 것과 마찬가지로 안중근 의병 역시 군사사적으로 보면 그 같은 전투능력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생포한 포로마저 전술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국제법에 따라 대우한다는 인도주의적 관점만을 고집한 채 전투수칙을 무시하고 처리함으로써 오히려 역습을 당하는 결정적인 실책을 범하고 말았다. 이 점은 안중근의 의병투쟁이 현실적 투쟁의 성과보다 여전히 투쟁의 정당성이나 정신적 가치에 비중을 둔 명분적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반증해준다. 그를 혹자가 '낭만주의자'로 평가하는 것도 이러한 측면과 연관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중근 의병과 연해주 의병은 종전의 국내의병의 일과적이거나 산발적인 투쟁이 아닌 장기적인 근거지 중심의 전략적 투쟁성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장차 독립전쟁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해외 무장투쟁이 갖는 군사적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무력투쟁의 다양한 형식적 변화, 즉 조직적인 독립전쟁과 동시에 의열투쟁이라는 비밀결사적 투쟁방식을 병행하는 단초가 되었다고 하겠다.

(원고투고일 : 2009. 1. 29, 심사수정일 : 2009. 3. 3, 게재확정일 : 2009. 3. 24)

주제어 : 의병, 안중근, 의열투쟁, 속오작대도, 의병전쟁, 군사사, 조선폭도토벌지, 국내진입작전, 연해주 의병, 근거지전략

<ABSTRACT>

## A Military Historical Approach about *Ahn Jung-geun's* troops as the Korean Righteous Army

Baek, Ki-in

This paper examines the phases of the Korean Righteous Army's military operations by arms and tactical or strategic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I conducted the analysis on the *Ahn Jung-geun's* troops, which was active in the East *Manzhou* and the Maritime Province (*Primorskiy Krai*) about 1909.

I conclude as follows on the phases and its characteristics of *Ahn Jung-geun's* military operations against the Japanese Imperialism.

First, *Ahn's* troop was also different from others's conditions. His troops had been used to the rifle such as matchlock or flintlock, and was gradually changing to the musket. His one revealed the mixture of traditional and modern weapons. When *Ahn* shot *Ito Hirobumi* at *Harbin*, his pistol was a Browning (Browning M1900 or M1903).

Second, in the military formation and tactics, the Korean Righteous Army as a volunteer was naturally different from high structure and low structure. Their principle of military basic formation was *3-3-5-5 system*, but their chain of command was weak and dispersed. *Ahn's* troops had 100 persons, they developed the way of small-sized military operation, so called guerrilla warfare. Even though *Ahn* had been full of military knowledge and operational capacity, his military operations were failure for discordance of command with the leaders around as a result.

Third, conclusion concern that, although *Ahn's* troops were in the limited condition, his spirit for fighting against Japan be toward the peace. Therefore it means that his fighting against Japan by armed forces was only a limited measure. On that point, some people say that *Ahn* is a Romantist.

In conclusion, even if *Ahn* was toward to fight Japan by dint of the Military Base, it seems that he stressed a peaceful intentions in spirit than the fighting, in that conditions.

Key Words : The Korean Righteous Army, *Ahn Jung-geun*, Fighting for Justice and Patriotism, A chart of military formation by *Sok-o*, Righteous Army War, *Ahn's* Troops, Japanese Imperialism, *3-3-5-5 System*, Guerrilla Warfare, Military Base